무서운 중학생들…대낮 도심서 선후배간 패싸움

친구 괴롭힌 中3에 "맞짱뜨자" 불러내
中2 25명이 선배 4명 집단 구타
광주 새학기 학교폭력 예방 비상

대낮 광주 도심에서 중학교 2학년 25명과 상급생인 3학년 5명이 집단으로 싸움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중 2학년생들은 자신의 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은 3학년과 일대일 대결을 하다가 흥분해 4명의 상급생들을 집단으로 구타, 패싸움으로 번졌다.

광주 경찰이 새학기 학교 폭력 분위기를 제압하겠다며 '학교폭력 집중 관리 기간'으로 설정, 캠페인 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버젓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경찰의 부실한 치안력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중학교의 경우 신학기가 시작된 이후 '서열 정하기', '기싸움' 등으로 세력 싸움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찰이 바짝 긴장한 상태였지만 학생들간 충돌은 막지 못했다.

10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5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 역산근린공원 내 공터로 S중학교 3학년생 5명과 관내 중학교 2학년생 25명이 몰려들었다.

이들 중 S중학교 3학년 학생 1명과 2학년 학생 1명이 욕설을 하더니 싸움이 붙었고, 이후 3학년생이 밀리며 넘어지자 2학년생들이 무더기로 달려들어 구타하기 시작했다.

이 싸움으로 3학년 학생 한 명이 코뼈·치아가 부러지고 주먹에 맞아 눈덩이가 찢어지는 등 부상을 입었으며, 나머지 3명도 타박상을 입었다. 주먹 외에 다른 도구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무더기로 가세하면서 피해 학생이 중상을 입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이날 패싸움은 학교 선·후배 간 시비에서 비롯됐다. S중학교 3학년 A(15)군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돈을 상납했던 B(14)군이 '맞짱'을 뜨자며 공원으로 불러내 싸움이 시작됐다. B군은 싸움에 앞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관내 6개 중학교에서 동급생 친구 24명을 불러 모았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괴롭힘, 금품 갈취, 집단 따돌림 등의 정황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을 지켜본 인근 동네 주민 및 피해 학생의 신고로 출동, B군 등 7명을 붙잡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경찰 순찰차를 보고 달아난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학부모와 교사들에 따르면 신학기가 되면 으레 각기 다른 초등학교에서 온 중학생들 사이에서 '서열 정하기' 등을 빙자한 '맞짱', '패싸움' 등이 빚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학교 주변 현장 순찰 강화 등 신학기 학교 폭력 예방에 나섰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2월 모두 47건의 학교폭력 사례를 파악, 29명을 입건하고 5명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새학기 안타까운 엄마의 절도

사업 실패 남편 연락 끊겨
지인들 도움 근근히 생활
참고서·아동복 등 훔쳐

"새 학기 준비해야 하는데, 학원도 못 보낼 처지라 얘들한테 미안해서요…."

최모(여·38)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초등학교 2학년(8)과 5학년(1) 아들을 홀로 키운 삶의 무게 때문인지 160㎝도 안 되는 짧은 키는 더욱 작게만 보였다.

사업에 실패한 남편은 수개월 전 연락을 끊은 채 집을 나섰고, 홀로 된 그는 지인들로부터 손을 벌리며 생활을 이어갔다. 안 넣은 곳 없이 이력서도 넣어봤지만 고졸 학력, 그리고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이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번번이 실패해야만 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18일 오후 1시50분께 광주시 서구 광천동 한 대형 쇼핑몰의 아동복 매장을 찾았다. 유난히 쌀쌀했던 터라 아이들이 입을 옷을 보러 갔지만 한 벌에 10만원을 호가하는 옷을 구입할 수는 없었다. 최씨는 순간 진열대에 걸어진 점퍼와 바지를 자신의 가방에 담았다. 며칠 뒤, 인근 서점에 들어가 아이들이 공부할 참고서, 문제집을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훔쳤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한 달간 모두 3차례에 걸쳐 3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최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생활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최씨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 측에 급식비 지원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체임 염전업주 둘 구속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10일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합동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홍모(56)씨 등 염전 업주 2명을 구속했다.

홍씨는 신안에서 염전을 운영하면서 최근 10년간 청각장애 4급 근로자에 대한 임금 1억100만원을 체불하고, 노동청과 경찰의 실태점검을 피해 근로자를 목포의 한 오피스텔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홍모(47)씨는 지적장애 2급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2900만원을 주지 않고 염전을 탈출하려 한 근로자 김모(39)씨를 붙잡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과정에서 김씨는 15년 만에 아버지 등 가족을 만났다.

노동청과 경찰은 '염전 노예' 파문 이후 일제 조사로 지난 3일 현재 근로자 93명이 임금 12억7500만원을 받지 못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황룡강 둔치 화재 10일 오후 1시20분께 광주시 광산구 장록동 황룡강 둔치에서 불이 나 버드나무와 잡풀 등 6700㎡를 태우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3시간 만에 진화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신종 사기 '몸캠' 범죄 2명 검거

영상 채팅 음란행위 유도
동영상 유포 협박 돈뜯어

스마트폰 영상 채팅을 통해 남성들에게 음란행위를 유도하는 과정에 악성코드를 설치해 전화번호를 파악한 뒤, 음란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이른바 '몸캠' 범죄 일당 2명이 붙잡혔다.

순천경찰은 10일 스마트폰 영상채팅을 통해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김모(25)씨와 또 다른 김모(41)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해외에 있는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통화자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은 뒤 가로챈 개인 정보를 이용해 협박,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아 인출하는 역할을 했다.

이들 일당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스마트폰 영상채팅 앱을 통해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해 해당 영상을 녹화하고 악성코드 앱을 설치해 저장된 연락처를 탈취, 돈을 주지 않으면 음란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몸캠' 수법으로 돈을 뜯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김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1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1억여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다시 해외 조직총책에게 송금하고 범죄 수익금 1000만원을 받았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지하철역사 '호기심 방화'

광주동부경찰은 10일 심심하다는 이유로 도심 지하철 역사(驛舍)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노숙자 이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일 밤 11시20분께 광주시 동구 금남로 4가 역 지하 1층에 추위를 피해 들어갔다가 미리 챙겨온 헌옷에 불을 붙여 광주도시철도공사 소유의 광주모형지도 시설물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역사(驛舍)에 불을 지르면 "어떻게 될까"하는 호기심에 불을 냈다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

기름유출 사고 이후 여수 낙포동 일대 공기 측정해 보니

정상 대기 수준 50배 달하는 벤젠 검출

'여수 우이산호 기름 유출 사고' 이후 여수 낙포동 지역 공기를 측정한 결과, 정상 수준의 50배에 달하는 벤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는 10일 서울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함께 사고 발생 5일 뒤인 지난달 5일 현장에서 공기 오염 정도를 측정하고 방제 작업을 했던 주민 37명에 대한 화합물 노출 정도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휘발성이 높은 톨루엔과 크실렌·에틸벤젠 등 유기화합물의 농도는 높지 않았으나 발암물질로 분류된 벤젠은 21.4 ~ 52.2 ppb 정도의 분포를 보여 정상 대기 수준(1ppb)보다 최대 5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벤젠의 경우 모두 36개의 샘플 중 3개에서 검출됐다.

조사 대상 주민 소변에서는 피부 질환을 유발하는 독성물질인 크실렌(Methyl Hippuric acid)이 평균 56 mg/g Creati. 검출됐다. 환경부가 2012년 발표한 한국인 일반인구의 소변 내 크실렌 평균 농도는 0.403 mg/g Creati.에 비해 여수 지역 주민의 검출 농도가 약 140배 높은 수준이다. 또 구토·두통 등을 호소하는 주민도 50%에 달했고 가려움이나 발진 등 피부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

이 단체는 "주민들이 초기 벤젠 등 고농도의 유해물질에 노출된 만큼 피해 주민들의 대피권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화학물질 관련 사고시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마련하고, 기업들이 공개를 거부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10년전 손 씻었는데… 생활고 70대 소매치기하다 덜미

쌍나팔

○…나이가 들어 일자리 찾기가 힘들어지자 10년 넘게 '끊었던' 소매치기 범행을 저지른 70대 노인이 경찰서행.

○…10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김모(75)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시내버스를 타고 북구 용봉동 전남대 정문을 지나던 중 신모(여·66)씨의 지갑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최근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소매치기 절도 행각을 벌였다는 것.

○…소매치기 전과가 6차례나 됐던 김씨는 지난 1999년 출소 이후 '손을 씻었다가' 최근 나이가 들면서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자 다시 범행에 나섰다가 덜미.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